재·보선, 정국에 어떤 영향

규모는 '미니'… 파괴력은 메가톤급

박희태·정세균 등 여야 지도부 입지 좌우

정동영 복귀 여부 등 정치 지형 변화 불가피

4·29 재·보선 결과가 여야 내부의 역학관계는 물론 정국 향배에도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국회의원 선거인 데다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비롯해 10개 시·도에 걸쳐 치러지는 '미니 전국선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예산안 심의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4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여야 지도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다.

한나라당의 경우 인천 부평을과 경북 경주에서 승리한다면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장, 재보선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미디어 전쟁'으로 불리는 6월 국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한 박희태 대표는 원외 대표라는 굴레를 벗고 실세 대표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오는 10월 재보선에서의 '출마 티켓'까지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두 곳에서 모두 패배할 경우 박 대표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전체가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내부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근혜 전 대표도 경주 재선거라는 '제로섬 게임'을 놓고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 북구 재선거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는 정몽준 최고위원도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주자로서 위상을 다지느냐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최대 승부처는 인천 부평을과 전주 완산갑이다. 여기에서 승리할 경우 정세균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구축하며 차기 대권주자의 반열로 한단계 상승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정세균 대표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386 세력 등 당내 주류세력도 당내 입지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2곳 모두에서 패배하거나 인천 부평을에서 고배를 마실 경우 정 대표는 당내 비주류의 '지도부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당내 일각에서는 선거 결과가 패배로 귀결될 경우, 지도부 총사퇴는 피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벌써부터 차기 당권 후보와 원내대표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전주 덕진에 무소속 출마한 정 전 장관은 '무소속 연대'로 한 배를 탄 완산갑의 신 건 후보의 당락 여부에 따라 희비가 교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반 당선할 경우 당 쇄신과 재건을 내건 복당 요구에 무게가 실리겠지만 실패하면 '상처뿐인 영광'이란 평가 속에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 당락 변수는

4·29 재·보선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어서 마지막 변수가 선거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가장 큰 변수는 투표율. 평일 치러지는 재·보선 투표율은 통상 20% 안팎이다. 현안이 없는 경우는 10%대 초반의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의 경우 지역적으로 관심이 달아오른 곳에서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텃밭에서 '집안싸움'을 벌이는 경주와 전주 덕진, 전주 완산갑의 경우 30%를 넘는 투표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조직세가 강한 거대정당에 유리하지만, 이 지역의 경우 무소속 후보의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무소속 후보의 선전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① 투표율 높을수록 무소속 후보에 유리

② 결집도 盧 전대통령 검찰 소환 영향력

③ 득표력 무소속 후보들과 지지층 겹쳐

그리고 재·보선에 임하는 지지자들의 결집도도 승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인 재·보선은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야당의 지지자들의 결집도가 높아 여당의 패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이라는 소재가 있어 지지자들의 결집도를 다르게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인천 부평을의 경우 '한나라 vs 민주' 구도가 형성돼 있어서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구여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정론이나 위기론 때문에 오히려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약체 무소속 후보들의 득표력. 진보진영 단일화로 비상이 걸린 울산 북구의 경우 한나라당 공천 결과에 반발해 출마한 무소속 김수헌 후보가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 표를 상당히 잠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 부평을 역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 탈당한 무소속 천명수 후보 지지세가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방선거에 지역정당 참여 허용해야"

국회, 정당공천제 폐해 토론회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지방정치와 중앙정당을 연결하는 매개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회장 김성조 의원)가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경기대 김익식 행정대학원장은 "지방선거에 한해 '풀뿌리 지역정당'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의사 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체인 지역정당은 패권정당이 아니라 지역밀착 정당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지방선거에 중앙정당이 나서 정부를 중간평가하는 대리전 선거로 몰아가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실종되고 올바르고 유능한 '지역지도자의 선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라대 강경태 교수는 "현재는 전국적 규모의 정당만이 (지방선거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정치가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될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시민사회단체에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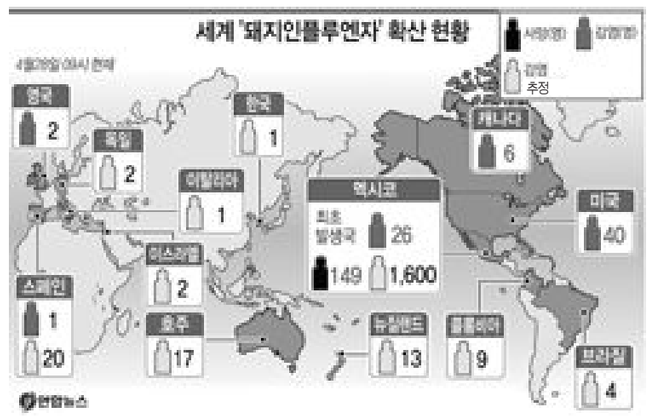
이에 따라 김 원장과 강 교수는 등록요건으로 각기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진 정치적 결사체만을 정당으로 인정하는 현행 정당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스페인·영국도 감염… SI 전세계 확산

〈돼지 인플루엔자〉

WHO, 경보 '4단계'로 격상



국내에서도 돼지 인플루엔자(SI) 추정 환자가 1명 발생하는 등 북미 지역에서 시작된 SI가 아시아와 유럽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7일 SI 확산 사태와 관련해 현재 6단계 중 '3단계'인 전염병 경보 수준을 전염병 리스크의 상당한 증가를 뜻하는 '4단계'로 격상시켰다.

특히 SI 진원지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멕시코는 페소화가 폭락하고 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SI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SI가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확산될 경우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물론 교역과 여행 위축으로 금융위기에 이어 세계 경제를 또 한번 뒤흔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SI 사망자 수가 150명을 육박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SI 사망자 수가 27일 오전(현지시간) 149명으로 늘어났다고 확인하고, 멕시코시티와 2개 주에 내렸던 휴교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미국에서도 S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오후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SI 환자가 11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전체 SI 감염자는 5개주 44명으로 증가했다.

유럽에서도 SI 환자가 잇따라 발생, SI 공포가 번지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자국민 1명이 SI에 감염된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감염자는 23세의 남자로 멕시코를 여행하고 돌아온 뒤 발열과 호흡기 계통의 고통을 호소해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영국에서도 멕시코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스코틀랜드인 2명이 SI 감염 환자로 확인됐다.

독일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최소 2건의 의심 사례가 발견됐고 이탈리아에서는 멕시코 국경 인근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다녀온 31세 여성의 감염이 의심되고 있으며 프랑스 등에서도 의심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SI가 급속히 확산되자 아시아 국가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 대만 등은 환자 발생시 격리 조치에 나서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28일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연합뉴스

SI에 지진까지, 멕시코 '패닉'

돼지 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전 11시46분(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6.0 규모의 강진이 발생,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황급히 건물 밖으로 몰려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멕시코가 돼지 인플루엔자(SI) 발생에 이어 지진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국민적 패닉상태에 빠졌다.

돼지 인플루엔자의 진원으로 지목돼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수출길마저 막혀버린 멕시코는 27일(현지시간) 발생한 규모 6.0의 강진으로 또 한번 마음을 졸여야 했다.

비록 사망자와 부상자는 즉각 보고되지 않았지만, 돼지 인플루엔자 공포에 짓눌려있던 멕시코인들에게 이날 지진이 던져준 충격파는 큰 듯 했다.

규모 5.7의 지진으로 도심의 건물들이 크게 흔들린 멕시코시티에서 SI 감염을 우려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길거리로 황급히 빠져나오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멕시코 전역은 환태평양 화산대에 속해 있는 데다 서쪽 태평양에 해저에 플레이트가 만나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멕시코시티 지역은 옛날 텍스코코 호수를 매립하여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합뉴스